

어명소 2차관, “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, 업무복귀 촉구”

- 수도권 시멘트공장 방문 및 피해상황 점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 2일(금) 오전,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,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,
 - “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,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,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에, 사측은 “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, 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”한다며,
 - “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,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”고 말했다.

2022. 12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